

8 인터뷰-한의사 김도균 동문(한의학 08)



한약사이자 방송인인 김도균 동문(한의학 08)을 만났다.

(사진=한진석 기자)

“한의학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
환자에게 눈 맞추는 한의사 되고파”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한의사는 수어로 진맥과 약이라는 단어를 함쳐 표현합니다. 과학의 시대에도 사람의 감각으로 아픔을 살피고, 고서 속 처방으로 약을 짓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듯합니다. 과학, 표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되 한편으론 거슬러야 하는 한의학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의 말과 학문의 용어가 달라 생기는 오해들에 맞서, 한의학의 강점을 알리는 일이 우선이겠지요. 한의사이자 방송인인, 한의학의 매력을 가장 앞에서 알려온 김도균(한의학 08) 동문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제는 매체를 떠나 환자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김동문. 그의 진료실에서 후배 한의학도로서의 고민을 하나씩 털어놓아 보았습니다.

Q. “31살에는 나만의 의학관을 찾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인터뷰를 우연히 봤습니다. 과연 그 의학관은 찾으신지, 또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A. “사실은 오히려 길을 더 잃은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한 획을 긋기를, 또 새로운 개척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도 무언가 작은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한의학을 가까이해왔고, 한의학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특성을 현대에 더 맞게 살릴 수

없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은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했고, 여러 책과 술기를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저만의 의학관과는 거리가 멀어진 듯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환자분들에게 더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었고, 더 좋은 치료를 생각해낼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눈앞의 환자에 집중하면서 그 답은 조금 더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의학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계속 새로운 공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의학관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동문은 미소를 지으며, 10년 뒤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 알려드리겠다는 겸손한 농담으로 답했습니다.

Q. 학생 시절 한의학에 대한 시선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선배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고민을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한의학,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에 닿아 있는 가정 분위기 덕에 저는 한의학의 논리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어요. 과학의 패러다임에 훨씬 익숙한 세대잖아요. 같은 학과 친구 중에서도 한의학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제게는 한의학의 관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길을 걷다 가로수를 보아도, 한의학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할 때의 어려움은 크게 없었지만, 오히려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현장에 나와서 더 자주,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의 치료 경험을 통해, 또 분야를 넘나드는 공부를 통해 스스로 확신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의 가장 큰 강점을 찾아서요. 한의사는 진단을 위해 환자를 자세히 보고, 진맥하고, 그 사람의 하루를 하나하나 묻습니다. 차트를 보지 않아도 그 환자의 변화를 기억하고, 기체가 환자와 한의사 사이를 가로막지 않아요. 진단을 위해 기계가 아닌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현대 한의학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Q. 진맥할 때 손이 차갑게 느껴질까 봐, 평일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자의

감각까지 상상하는 그 마음이 선배님의 치료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의학이 환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의학이라 한다면, 환자의 반응과 느낌을 생각하며 치료에 임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치료할 때에도 저는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약효가 강하거나 빠르게 나타나는 처방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가장 소극적인 치료부터 시작해요. 답답해하는 환자분도 계시고, 저도 이 치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를 더 신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처방과 지도에도 잘 따라주셔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할 때도 이런 접근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으로만 치료하지 않고, 일단은 이야기를 전부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원래 먹고 있던 약은 조금씩 줄이고, 제 처방은 조금씩 늘리면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신체적인 증상들도 하나씩 사라지곤 해요.”

요즘은 어떤 고민이 있냐고 질문하면 김 동문은 본인의 답에 앞서 상대의 고민을 되물었습니다. 관계, 그리고 사람의 감각을 진단의 도구로 삼는 한의학이, 때론 환자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이 삶에 배어있음을 느꼈습니다.

Q. 평범한 삶을 꿈꾸셨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기는 싫었다’고 하셨지요. 한의사로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요.

A. “정말 우연한 기회로 방송에 출연하고, 또 한의학을 알릴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셨고요.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해소하고, 대신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한의학의 전부를 일부 방송에서 다 전달하긴 어렵고, 결국 한의학이 필요한 현장에서 저의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맞는 길이란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저의 진료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지요.

한의학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약에 들어가는 약재 중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들도 많죠. 다양한 제품과 문화 속에 한의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중화, 과학화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레 나아가는 중이에요. 다만 한의학이 우리의 삶과 깊은 연결고리를 맺어갈수록, 한의사의 역할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의사만 알던 많은 지식과 기술이 일상에 번져 간다면 말이에요. 저는 일상에서도 한약을 차로 즐길 방법은 없을지 작은 도전을 하고 있지만, 후배님들은 더 멋진 생각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지금과는 다른 길도 두드려보는 것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집 주변, 학교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던 제가 우연한 길에 들어서 한의학을 알릴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요. 머릿속 말고 머리 밖에서 다른 학문, 새로운 문화, 접해보지 않은 기술과의 만남을 시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과의 후배님들도 자신의 전공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굳은 흙처럼 이 진료실이라는 틀을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대학생이라는 시절은 정말 치열하게 자신을 빚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자신을 빚어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단니 문득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김 동문이 전하고자 했던 말은 아마도 어떠한 형태로 빛든다 괜찮으니, ‘아무것도 아닌’ 누군가가 되지 말자는 뜻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그 다름 속에 길이 있다는 한의학의 메시지처럼 말입니다.